

성호 이익의 『대학질서』 연구

서근식

강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국철학 전공

rootsik@hanmail.net

I. 머리말

II. 『대학질서』의 저술목적

III. 경문(經文)을 통해 본 성호의 『대학질서』

IV. 전문(傳文)을 통해 본 성호의 『대학질서』

V. 격물치지에 관한 성호의 견해

VI. 맺음말

I. 머리말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¹⁾은 조선 후기에 성호학파를 이룬 만큼 대사상가였다.²⁾ 성호의 학맥은 경세치용학파라고 불리는 성호학맥으로 꾸준하게 이어진다. 성호의 학문은 뒤에 다산 정약용(1762-1836)에게 이어져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성호의 학맥은 가학³⁾으로서 청화산인 이증환(1690-?), 정산 이병휴(1710-1776), 목재 이삼환(1735-1813), 정헌 이가환(1742-1801) 등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소남 윤동규(1695-1773), 하빈 신후담(1702-1761), 순암 안정복(1712-1791), 녹암 권철신(1736-1801), 손암 정약전(1758-1816), 다산 정약용(1762-1836) 등으로 이어져 이후에 성호학파가 되었다. 성호의 학문이 학파까지 형성하게 된 것은 그가 개방적인 학문태도로 『성호사설』·『곽우록』 등을 통해 경세학을 제시하고 『질서』를 통해 경학을 천발하였기 때문이다.⁴⁾ 성호의 저작은 모두 모아져 『성호전서』(전7책)⁵⁾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성호의 경학 사상은 『성호질서』로 통칭되는 『맹자질서』, 『대학질서』, 『소학질서』, 『논어질서』, 『중용질서』, 『근사록질서』, 『심경부주질서』, 『역경질서』, 『서경질서』, 『시경질서』, 『가례질서』⁶⁾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대학질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성호의 경학사상을 언급할 때 『성호사설』의 내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성호사설』의 내용이 『질서』의 문제의식을 더욱 확장해서 언급했

1) 本官은 驪州, 字는 自新, 號는 星湖이다.

2) 星湖와 星湖學派의 位相에 대해서는 徐根植, 「近畿南人으로서의 星湖 李瀾의 易學思想-「善卦攷」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第32輯(한국철학사연구회, 2011. 9), 164-168쪽 참조.

3) 家學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집은 林煥澤 編輯, 『近畿實學淵源諸賢集』(全6冊)(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2002) 참조.

4) 星湖學派의 學統에 대해서는 姜世求, 『성호학동 연구』(해안, 1999); 元在麟, 『조선 후기 星湖學派의 학동 연구』(해안, 2003); 尹載煥, 「近畿南人 學統의 展開와 星湖學의 形成」, 『溫知論叢』 第36輯(溫知學會, 2013. 7) 참조.

5) 驪江出版社에서 1984년에 影印되었다. 이 글에서도 『星湖全書』에 수록된 『大學疾書』를 판본으로 사용하겠다. 『大學疾書』는 『星湖全書』의 4冊에 들어 있으며, 명백히 誤字·脫字라고 생각되는 것은 수정하여 인용하도록 하겠다. 星湖의 『大學疾書』는 朱子の 『大學章句』의 體制를 따랐다. 그리고 『大學疾書』는 面數를 구분하기 힘들므로 『星湖全書』 4冊에 나와 있는 面數로 구분하겠다.

6) 『星湖疾書』의 순서는 星湖가 착수하기 시작한 순서이다. 여기서 『大學疾書』는 『孟子疾書』에 이어 두 번째로 착수한 『疾書』이다.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호의 『대학질서』를 언급하고, 『성호사설』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성호사설』은 『대학질서』의 내용을 너무 확장한 것이고, 『대학질서』만으로도 성호의 『대학』 해석에 대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질서』는 주자(1130-1200)의 『대학장구』에 비해 양이 매우 많아 『대학질서』만으로도 성호의 대학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다.

성호의 『대학질서』는 연구성과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학위논문으로는 『대학질서』를 단독으로 다룬 논문이 없으며 사서(四書)를 같이 다루고 있다. 권문봉의 「성호 이익의 경학과 사서질서」(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와 김정민의 「성호 이익의 사서질서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가 있다. 일반논문으로는 안재순의 「이성호의 『대학질서』에 관한 고찰」(『동양철학연구』 제2집, 동양철학연구회, 1981. 9)이 있다. 안재순의 논문은 『성호전서』가 편찬되기 3년 전에 나왔고, 이 논문이 나온 이후 다음 논문이 20년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석기의 「성호 이익의 『대학』 해석과 그 의미」(『한국실학연구』 제4호, 한국실학학회, 2002. 12), 권문봉의 「『대학』 주석을 통해 본 성호의 경학」(『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12), 김인규의 「성호 이익의 대학관」(『동방학』 제17집, 한서대학교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9. 10, 이 논문은 2013년에 심산출판사에서 발간한 『『대학』의 종합적 고찰』, 심산에 실려 있음)과 최석기의 「성호의 대학·중용 해석과 그 의미」(『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 무늬, 2012)가 있다. 권문봉의 학위논문은 최초의 학위논문이라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내용을 온전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김정민의 학위논문은 『대학질서』를 분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므로 의미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재순의 논문은 30여 년 전에 성호의 『대학』에 대한 이해를 논문으로 작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석기의 논문은 자세한 것은 좋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 지루하고 책으로 나온 것은 『대학』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중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권문봉의 논문은 성호의 『대학질서』를 양명학적으로 살펴본 것이지만 과연 성호를 양명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인규의 논문은 새로운 주장을 한다고 했지만 권문봉의 논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출해보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는 주로 성호가 주자의 학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대학질서』의 저술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경문(經文)과 전문(傳文)을 통해 성호가 어떻게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주자의 『대학장구』의 체제를 따르고 있는 『대학질서』에서 성호가 어떠한 방식으로 격물치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II. 『대학질서』의 저술목적

성호는 『대학질서』의 「서문·편제」와 「발(跋)」 부분에 저술 목적을 밝혔는데, 특히 「발」 부분에 더 잘 나타나 있다.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장구』는 주자가 모두 해석해놓은 것은 아니다. 『대학혹문(大學或問)』에서 비로소 충분히 설명을 전개하여 유감이 없게 하였다. 해석을 다하지 않은 것은 상세히 탐구하여 스스로 알게 하려 한 것이요, 충분한 설명을 전개한 것은 그들이 참고하고 체험한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하려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장구』를 공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의문을 제거하기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요, 『대학혹문』을 읽는 사람은 마침내 환하게 알게 될 것이니, 이것이 주자의 본뜻이다. [...] 아아! 이 책이 이렇게 알기가 어렵단 말인가!)

이 말대로 하면 주자는 『대학장구』와 『대학혹문』을 통해 자신의 본뜻을 모두 드러냈다. 그러므로 『대학장구』와 『대학혹문』만 보면 『대학』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또 『어류』는 혹시라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저술된 것이다. 그러나 성호는 『대학장구』, 『대학혹문』, 『어류』를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대학질서』를 저술하게 된 것이다. 성호는 ‘회의(懷疑)를 통한自得(自得)’이라는 방법을 통해 주자를 새롭게 바라보려고 한 것이다. 물론 성호는 주자를 무척 존경하였다. 그러나 그의 질서류(疾書類)를 보면 곳곳에서 주자의 의견과

7) 『大學疾書』「跋」680쪽, 上右-上左. “大學章句者 朱子不盡釋也. 至或問則始及十分開說 無遺憾. 不盡釋 待其詳味而後自得. 十分開說 欲其參驗有信. 故治章句者不害其憤悱. 讀或問者 終至乎沛渙. 此朱子之本意也. [...] 噫其不可以易了也 如此夫.”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는 성호가 주자를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회의를 통한 자득’을 통해 주자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성호를 탈주자학자 또는 반주자학자라고 한다. 그러나 성호는 주자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자의 해석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주자와는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부분도 있다. 또 어느 부분의 견해는 필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성호는 주자의 해석을 보충하면서도 주자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종합되어 뒤에 성호학파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성호는 발문에서 우리가 주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네 가지 점을 말하면서 주자의 『대학장구』와 『대학혹문』, 『어류』를 반드시 숙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호는 발문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평소에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와 스승에게 가서 질문하기 위한 자료들을 함께 기술하였다. 토론하여 바로잡아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 뒤에 다시 기록하고 삭제하고 정리할 것이니, 이 기술이 행여 집안 서당에서 공부하는 자제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⁸⁾

성호는 『대학장구』를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것을 주제로 삼아 토론하였다. 만약 주자의 학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대학질서』는 그냥 저술된 것이 아니라 성호가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원칙하에 기록하고 삭제, 정리한 것을 모아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성호는 『대학질서』에서 주자가 미처 제기하지 못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대학장구』의 체제를 따랐으므로 여전히 주자가 『대학장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서문·편제」에는 주로 어떻게 「대학」이 『예기』에서 분리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다. 「서문」은 주자가 「대학장구서」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학설이 서로 다른데 정이는 『대대예기』와 『백호통의』의 내용을 따라서 “옛날에

8) 『大學疾書』「跋」680쪽, 下左. “遂并著所嘗疑晦爲往質朋師之謀. 若得磨磨糾繩 儘覺吾始心之謬妄. 然後更加筆劄剗革而整頓之 則或庶幾此錄之有助於家塾子弟矣.”

는 8세에 소학에 들어갔고, 15세에 대학에 들어갔고, 40세에 비로소 벼슬에 나아갔으니 그 사이에 저절로 25년간 공부할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지금 「서문」에서는 정자의 학설을 따른 것이다.⁹⁾

주자가 「대학장구서」에서 “8세가 되면 왕공으로부터 아래로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들어가고 [...] 15세가 되면 천자의 원자(元子)·중자(衆子)로부터 공·경·대부·원사의 적자(嫡子)와 일반 백성의 준수(俊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태학에 들어간다”¹⁰⁾라고 한 것은 정이(1033-1107)의 학설을 따른 것이다. 이 말대로 하면 8세에 소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소학에서 배울 교재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자는 제자 유청지(1134-1190)에게 『소학』을 편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15세가 되면 태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태학에서는 교재인 『대학』을 배우게 된다. 8세에 소학에 입학하고, 15세에 태학에 입학한다는 표현이 없었다면 주자는 『소학』을 편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주자는 정이의 의견을 따르고 성호 역시 주자의 의견을 따랐으므로 『소학』과 『대학』이 모두 존재하게 된다. 성호 역시 주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역시 성호에게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주자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대학(大學)’은 반드시 ‘태학(太學)’으로 읽어야 하며, 태학에서는 지도자 계층인 주자(胄子)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다.¹¹⁾ 다산에게서 ‘태학’은 정자·주자의 학설에서 벗어나 보다 의미 있게 바뀌게 되었다.

성호의 『대학질서』는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원칙하에 새로운 것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주자가 주장한 학설들을 그대로 따르면서부터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전의 백호 윤희(1617-1680)나 서계 박세당(1629-1703)이 이미 제시해놓은 체제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9) 『大學疾書』 「序文篇題」 650쪽, 下左. “諸說不同 程子從大戴白虎通之文 曰古者八歲入小學 十五入大學 至四十方仕 中間自有二十五年學. 今序文因程子之去就也.”

10) 『大學章句』 「大學章句序」.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 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 及其十有五年 則自天子之元子衆子 以至公卿大夫元士之適子 與凡民之俊秀 皆入大學.”

11) 星湖는 ‘懷疑를 통한自得’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朱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茶山은 朱子의 주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解釋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星湖는 새로운 解釋과 朱子의 解釋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고, 茶山은 朱子의 주장에서 탈피한 느낌이다. 星湖가 朱子와 새로운 解釋 사이에서 고민하였기 때문에 후에 星湖學派라는 學派까지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질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Ⅲ. 경문(經文)을 통해 본 성호의 『대학질서』

성호의 『대학질서』는 주자의 『대학장구』의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대학장구』와 동일하게 경1장, 전10장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경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강령과 팔조목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기존의 논문에서 많이 밝혀놓았으므로 여기서는 그 대략적인 것과 의문이 가는 점을 언급하도록 하겠다. 삼강령은 명명덕·친(신)민·지어지선이 고 팔조목은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이 다. 먼저 명명덕에 대해 살펴보자. 주자는 명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덕은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것으로, 텅 비고 신령스러우면서 어둡지 않아(虛靈不昧) 온갖 이치를 갖추고 모든 사물에 응한다(具衆理而應萬事). 다만 기쁨에 구애받고 사람의 욕심에 가리어 간혹 어두운 적은 있으나(有時而昏) 그 본체의 밝음에서는 그친 적이 없다.¹²⁾

성호는 여기에서 허령불매의 ‘매(昧)’자와 유시이혼(有時而昏)의 ‘혼(昏)’자는 다른 뜻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昧)’는 주체 스스로 어두운 것이고 ‘혼(昏)’은 대상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이다. ‘매(昧)’자는 ‘명덕’의 ‘명(明)’과 대응되며, ‘혼(昏)’자는 ‘명지(明之)’의 ‘명(明)’과 대응된다.¹³⁾

‘매(昧)’자와 ‘혼(昏)’자는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매(昧)’라는 글자는 ‘어둡다’라는 뜻이고, ‘혼(昏)’이라는 글자는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이다. 즉, ‘매(昧)’는 ‘명덕’의 ‘명(明)’자와 대응되고, ‘혼(昏)’은 ‘명지(明之)’의 ‘명(明)’자와 대응된다. 이와 같이 자의(字義)를 고증한 것은¹⁴⁾ 다른 여러

12) 『大學章句』「經1章」朱子註. “明德者 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 則有時而昏. 然其本體之明 則有未嘗息者. 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 以復其初也.”

13) 『大學疾書』「經」652쪽, 下左. “昧者 自昧也 昏者 爲他所昏也. 昧者 應明德之明 昏者 應明之之明.”

질서류에서도 보이지만, 『대학질서』의 이 부분은 성호의 ‘회의를 통한 자득’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이다.

삼강령 가운데 두 번째 강령인 친(新)민에 대해 살펴보자. 성호는 친민을 신민으로 본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동」의 “나 소자가 직접 미중 나가야 하겠다”¹⁵⁾라는 구절에 대한 채침의 주에는 정현의 『시전』을 인용하여 ‘신(新)’자는 ‘친(親)’자로 보아야 옳다고 하면서 그것은 『대학』에서 ‘신(新)’자를 ‘친(親)’자로 잘못 표기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대개 옛사람들은 이 두 글자를 통용해서 사용하였다.¹⁶⁾

『대학질서』의 경문을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는데, ‘친(親)’자를 ‘신(新)’자로 고쳤다는 부분은 이 부분뿐이다. 성호가 ‘회의를 통한 자득’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무언가 더 언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없고 단지 본래 ‘신(新)’자였던 것을 ‘친(親)’자로 잘못 사용하였다는 말뿐이다. 또 이 부분은 전2장과도 관련되는데 전문에서도 왜 친민을 신민으로 바꾸어 해석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2장에서 주자는 신민 부분을 해석한 것이라고 하였고, 내용도 ‘신(新)’자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전문이 경문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때 경문에서 분명하게 친민을 신민으로 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성호는 다만 위의 인용문처럼만 해석해놓고 더 이상의 말이 없다. 예를 들어 전2장은 ‘신(新)’자의 뜻에 대해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전문이 경문에 나온 말을 해석한 것이므로 경문에서도 ‘친(親)’자보다는 ‘신(新)’자가 들어가는 것이 옳바를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성호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은 의문으로 남는다. 또 성호는 위 인용문의 바로 앞에서 ‘명(明)’자와 ‘신(新)’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필자는 이 부분에 의문이 든다.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明)’자와 ‘신(新)’자는 서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경문에서 “천하에 밝은 덕을

14) 崔錫起, 「星湖 李瀼의 『大學』 解釋과 그 意味」, 『韓國實學研究』 第4輯(韓國實學學會, 2002. 12), 182-195쪽 참조.

15) 『書經』 「金縢」. “惟朕小子其新逆.”

16) 『大學疾書』 「經」 653쪽, 上右. “金縢惟朕小子其新逆 註引鄭氏詩傳 新當作親猶大學以新作親也. 蓋古人二字通用也.”

밝히다(明明德於天下)”라고 말한 것은 곧 “백성을 새롭게 한다(新民)”는 말이다.¹⁷⁾

그렇다면 ‘친(親)’, ‘신(新)’, ‘명(明)’자가 통용된다는 말인가?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곧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즉,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부터 새롭게 되어야 한다.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덕을 밝히는 것이 바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성호는 ‘명(明)자와 ‘신(新)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강령인 지어지선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지(止)자가 문제된다. ‘지(止)자에 대해 성호는 “대체로 ‘지(止)라는 말은 최선의 경지에서 그친다(至至善)라는 의미와 옮기지 않는다(不遷)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다”¹⁸⁾라고 하고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 문장에서 ‘여기에 이르러 옮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여기에’라는 말 대신에 ‘최선의 경지’라는 말로 바꾸어 ‘최선의 경지에 이르러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최선의 경지에 이른다(至至善)’에 이른다’는 것과 ‘옮기지 않는다(不遷)’라는 두 가지를 겹쳤을 때에 비로소 ‘그친다(止)’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미 ‘그친다’라고 해놓고 다시 ‘옮기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말로서 문장이 되지 않는다. 경문에서 본래 ‘최선의 경지에 그친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러한 점지(止)에 지(至)와 불천(不遷)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¹⁹⁾

이러한 부분은 성호가 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성호의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원칙이 드러나는 그의 뛰어난 의견인 것이다. 비록 주자의 『대학장구』, 『대학혹문』, 『어류』를 따르기는 하였지만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이 자득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문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삼강령과 팔조목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즉, 삼강령에서 제시한 것을 팔조목에서 해석한

17) 『大學疾書』 「經」 652쪽, 下左. “明與新可替換說. 經曰 明明德於天下 新民之謂也.”

18) 『大學疾書』 「經」 653쪽, 上左. “蓋止字 兼至至善及不遷兩義.”

19) 『大學疾書』 「經」 653쪽, 下右. “上云至於是而不遷 故於此以至善之地四字 換一是字而云. 至於至善之地而不遷 兼至至善與不遷兩句 方爲止字之義. 今若既云止 又云不遷 則便覺剩語 而不成文勢. 蓋因經文本有止至善三字 而不察於此也.”

것이다. 그러나 주자는 삼강령과 팔조목 사이에 ‘지지절(知止節)’과 ‘물유본말절(物有本末節)’을 끼워 넣는다. 주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지지(知止)’의 ‘지(止)’자가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지(止)’자와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끼워 넣은 것이다. 성호는 “『대학』의 요점은 삼강령과 팔조목에 있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요점은 또 근본과 지엽의 구분이 있다”²⁰⁾라고 분명히 삼강령과 팔조목을 『대학』의 요점으로 보고 있다. 삼강령과 팔조목 사이에 끼어든 ‘지지절(知止節)’과 ‘물유본말절(物有本末節)’에 대해 회재 이언적(1491-1553)은 격물치지를 설명하는 전문으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하였다.²¹⁾ 그러므로 회재의 『대학장구보유』는 경1장, 전9장의 체제로 주자의 경1장, 전10장의 체제와도 다르며 격물치지를 설명하는 견해도 다르다. 여기에서 성호는 주자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 필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회재의 말을 옳다고 본다. 이언적의 호 회재는 주자의 호 회암에서 따온 것이다. 그만큼 주자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재는 ‘지지절’과 ‘물유본말절’을 삼강령과 팔조목 사이에 넣는 것에 대해 격물치지를 설명하는 전문으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즉, 성호는 삼강령과 팔조목 사이에 회재가 비판했던 점을 수용하지 않고 주자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대학장구』의 이 부분만 빼면 경문은 오로지 삼강령과 팔조목으로만 이루어지게 된다. 이 점은 성호가 ‘회의를 통한 자득’의 원칙하에 『대학질서』를 저술했지만 『대학장구』의 체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사항으로 남는 것이다.

여러 연구성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호는 『대학』의 저자를 자사로 보고 있다.²²⁾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인(門人)’이란 자사를 가리킨 것이다. 주자는 “어떤 사람이 증자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중용』·『맹자』와 부합하는 것이 많았으니, 자사가 이것을 맹가에게 전수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정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²³⁾

20) 『大學疾書』 「經」 660쪽, 上右. “大學之要在三綱八條 而行之之要在本末.”

21) 徐根植, 「晦齋 李彦迪의 『大學』 해석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學會』 第34輯(東洋古典學會, 2009. 3), 45-53쪽 참조.

22) 崔錫起, 「星湖 李瀛의 『大學』 解釋과 그 意味」, 『韓國實學研究』 第4輯(韓國實學學會, 2002. 12), 205-206쪽 참조.

23) 『大學疾書』 「經」 661쪽, 上右. “門人爲子思也. 朱子曰 或引曾子之言 而多與中庸孟子合 子思以授孟子無疑 當以此爲定論也.”

성호는 『중용』과 더불어 『대학』도 자사의 저술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용질서』에서도 비슷한 말로 『대학』의 저술이 자사임을 확신하고 있다.²⁴⁾ 성호는 「대학」과 「중용」의 저자가 자사로서 똑같이 『예기』에 들어갔음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학」과 「중용」이 똑같이 『예기』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이렇듯 성호는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원칙하에 『대학』의 저자가 자사임을 확신하였다. 다음으로 격물치지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V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는 주자의 『대학장구』 체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점도 주자와 비슷하다. 주자는 삼강령과 팔조목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지지질과 물유본말질을 삼강령과 팔조목 사이에 끼워 넣었다. 성호도 같은 입장이다. 이 부분은 회재가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부분이다. 그리고 명명덕의 문제에서는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입장에서 성호의 독특한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친(新)민에서도 ‘친(親)자를 ‘신(新)자로 본 이유에 대해 한 구절만 내세웠는데 이 점은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측면에 어울리지 않는다.

IV. 전문(傳文)을 통해 본 성호의 『대학질서』

전문에 관한 부분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밝혀놓았듯이 전4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전4장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해석하지 않았다는 말로 끝내고 있다. 이 부분은 필자가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전4장의 내용은 “공자께서 ‘쟁송(爭訟)을 다스림은 내가 다른 사람과 같으나 반드시 백성들로 하여금 쟁송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실정이 없는 사람이 그 거짓말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기 때문이니, 이것을 근본을 인다고 하는 것이다”²⁵⁾라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공자의

24) 徐根植, 「星湖 李瀾의 『中庸疾書』 研究」, 『東洋古典學會』 第54輯(東洋古典學會, 2014. 6), 87-88쪽 참조.

25) 『大學章句』 傳4章.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無情者 不得盡其辭 大畏民志 此謂知本.”

말은 『논어』 「안연」 13장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성호는 해석은 『대학질서』에도 보이지 않고, 본래 이 문장이 담겨 있는 『논어질서』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해 주자는 “이상은 전문의 4장이니 본말을 해석하였다”²⁶⁾라고 주석하고 있어 이 부분은 배치가 잘못되어 있어 이곳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경문에서 회재가 문제 삼은 ‘지지절(知止節)’과 ‘물유본말절(物有本末節)’에 대한 해석이다. 즉, 경문에서 ‘지지절’과 ‘물유본말절’만 빼면 삼강령과 팔조목으로만 이루어진 글이었는데, 주자는 ‘지지(知止)’의 ‘지(止)’자를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지(止)’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강령과 팔조목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리고 경문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에서 ‘청송절(聽訟節)’을 삽입한 것이다.²⁷⁾ 이 부분은 회재가 이미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성호가 해석을 넣지 않은 것은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입장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무튼 성호가 전4장을 해석하지 않았으므로 성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다만 전4장은 경문의 ‘지지절’과 ‘물유본말절’의 해석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주자는 이를 전4장을 두어 해석하고 있으며, 성호는 전4장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주자가 팔조목을 해석하면서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단계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언급하였다는 점이다. 주자는 「격물치지보망장」을 만들어 전5장에 삽입해 넣으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전5장에 해당되는 「격물치지보망장」은 ‘소위치지재격물자(所謂致知在格物者)’로 시작하고, 전6장은 ‘소위성기 의자(所謂誠其意者)’, 전7장은 ‘소위수신재정기심자(所謂修身在正其心者)’, 전8장은 ‘소위제가재수기신자(所謂齊其家在修其身者)’, 전9장은 ‘소위치국필선제기가자(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로 시작하며 전10장은 ‘소위평천하재치기국자(所謂平天下在治基國者)’로 시작한다. 전7장부터 전10장까지는 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주자가 제시한 단계적 설명에 의하면 전5장에 해당하는 「격물치지보

26) 『大學章句』 傳4章 朱子註. “右傳之四章 釋本末.”

27) 徐根植, 「晦齋 李彥迪의 『大學』 해석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學會』 第34輯(東洋古典學會, 2009. 3), 46-53쪽 참조.

망장』과 전6장을 통해 격물→치지→성의→정심의 관계가 설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격물치지보망장」을 통해 격물→치지의 관계는 설명되었지만 전문을 통해 치지→성의→정심의 관계가 완전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다. 즉, 전문에서는 ‘소위성의재치지자(所謂誠意在致知者)’와 ‘소위정심재성의자(所謂正心在誠意者)’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²⁸⁾ 이 부분은 팔조목의 단계를 증시한 주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성호는 이러한 문제점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 성호는 ‘회의를 통한 자득’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물론 자의에 대한 고증을 뛰어나지만 위와 같이 보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전7장의 “신(심)유소분치(身(心)有所忿懣)”에서 정자와 주지는 모두 ‘신(身)자’를 ‘심(心)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심(心)으로 해야 하느냐 신(身)으로 해야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논란거리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 성호는 정자와 주자의 의견에 따른다.²⁹⁾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은 성과 정을 통섭한다. 정의 부정(不正)함은 곧 성의 부정(不正)함이다. […] 분치(忿懣) 등은 정이다. 심의 정·부정은 동·부동에 달려 있다. 정은 심지용(心之用)이다. 한번 분치 등이 일어날 때 살피지 못하면 심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 분치 등의 정이 이기게 된다. 정이 기세를 부리면 정이 하는 행동은 곧 바름(正)을 잃게 된다. 정이 그 바름(正)을 잃으면 곧 심(心)은 그 바름(正)을 얻지 못한다.³⁰⁾

성호는 전7장을 해석하면서 심통성정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심(心)의 정·부정은 심의 동·부동에 달려 있는데, 심의 부정은 심이 동했을 때 정을 제대로 통섭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에도 부정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분치라는 것은 정인데 분치가 생긴 이유는 심지용(心之用)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부분은 성호가 주자의 『대학장구』를 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성호는 정자와 주자를 따름으로써 『대학장구』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8) 徐根植, 「『大學』解釋을 통해 본 朱子의 格物致知論」, 『東洋古典研究』 第33輯(東洋古典學會, 2008. 12), 365-366쪽의 각주8 참조.

29) 茶山은 이 부분은 ‘身’字로 써야 함을 주장하였다.

30) 『大學疾書』 「七章」 671쪽, 上左-下右. “心統性情者也. 情有 不正 卽心之不正也. […] 忿懣等情也 而心之正不正 只爭箇動不動. 情卽心之用也. 一有 忿懣等而不察 則心不能不動. 忿懣等情爲之勝 情既熾濫矣. 情之所行 便失其正也. 情失其正 便是心不得其正也.”

성호는 전8장을 해석하고 있는데, 주지는 전7장 끝부분의 해석에서 “이로부터 이하는 모두 옛글을 옳은 것으로 삼는다”³¹⁾라는 말은 붙여 전8장부터는 옛 판본이나 『대학장구』의 판본이 다름없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성호는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는 주자의 뜻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9장에서는 ‘서(愆)’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자의에 대한 고증만 있다. ‘서(愆)’에 대한 부분은 『논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대학』 전10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의에 대한 고증은 많지만 ‘서(愆)’에 대한 설명은 없다.

전10장의 해석에서 『주역』과 『대학』 전10장의 관련성에 대해 성호는 『성호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인이 『주역』을 지으면서 천하를 평균케 하는 중요한 방법을 총론하여 말하기를 “천지의 큰 덕을 생(生)이라 말하고 성인의 큰 보(寶)를 위(位)라 말한다. 무엇으로써 위(位)를 지키느냐 하면 인(仁)이요, 무엇으로써 사람을 모으느냐 하면 재(財)인 것이다. 재(財)를 다스리며 사(辭)를 바로하며 백성의 잘못을 금하는 것을 의(義)라 한다”³²⁾라고 하였는데, 증거는 이를 터득하여 부연해서 『대학』 전10장을 만들었다. 그 머리말과 꼬리말이 사람과 재(財)의 두 단계에 벗어나지 않았으니, 재물로써 사람을 모으고 사람으로써 위(位)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재물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재물만 다스리면 그릇된 짓을 하는 데 빠지기가 쉬운 까닭에 의(義)로써 종(終)을 지은 것이니, 그 요점은 혈구(絜矩)에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진서」의 한 구절은 득실의 요점이 되고, 생재(生財)의 한 구절은 또 재물 모으는 요점이 된다. 이것이 모두 혈구의 한 글귀에 모이는 것이니, 구구절절이 『주역』 글 가운데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독서하는 자는 모름지기 자세히 맞추어보아야 유익할 것이다.³³⁾

성호는 『대학』을 『주역』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

31) 『大學章句』 「傳7章」 朱子註. “自此以下 並以舊文爲正.”

32) 『周易』 「繫辭傳」 下 1章. “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 曰仁 何以聚人曰財 理財 正辭 禁民爲非 曰義.”

33) 『星湖僿說』 卷二十六, 「大學出於易」 993쪽, 下右-下左. “聖人作易 總論平天下之要道 曰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曰仁 何以聚人曰財 理財 正辭 禁民爲非曰義. 曾子得之演爲大學傳第十章. 首尾不出於仁與財二段 以財聚人 以人守位. 故國不可以無財 理財易陷於爲非 故以義終之要 在於絜矩也. [...] 故秦誓一節 爲得失之要 生財一節 又聚財之要. 總會于絜矩一句. 節節句句 莫非從易文中流出 讀者須仔細 勘合方有益.”

에 성호는 『대학질서』 곳곳에서 『주역』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전10장이 『주역』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전10장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성호가 전10장의 문제만으로 『대학』 전체가 『주역』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어떻게 『대학』이 『주역』으로부터 연유한 것이겠는가? 이러한 부분은 성호의 견해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대학질서』에서 성호는 혈구에 대해서도 주자의 견해를 따라 해석을 하고 있다.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혈구(絜矩)에 대해 주석자들은 모두 구(矩)로 재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어세(語勢)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제 “구(矩)를 가지고 물건을 잴다”는 뜻이라면 구혈(矩絜)이라고 해야 그런 뜻이 된다.³⁴⁾

성호는 혈구를 구(矩)로 재는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구(矩)를 잴다고 하면 구혈(矩絜)이 되어야지 혈구(絜矩)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주석자들은 모두가 혈구의 구(矩)를 ‘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 해석된 것이다. 성호는 구(矩)를 잴다고 하면 구혈(矩絜)이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주자가 이미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혈구의 뜻에 대해 성호는 주자가 해석한 뜻을 따라 해석하고 있다.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장구』에서는 “혈(絜)은 헤아린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헤아린다(度)는 무슨 뜻인가? 주자는 “혈(絜)은 묶는다는 뜻이다. 물건을 묶어서 분량의 대충을 삼는 것이다. 물건을 묶어서 크기를 분별하려는 것은 곡척(曲尺)의 쓰임과 무관하다”라고 하였다. [...] 『대학장구』에서 “구(矩)는 반듯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어찌서 반듯하게 하는 공구라고 하지 않고 반듯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가? 반듯하게 하는 것이요 곡척(曲尺)이 아니기 때문이다.³⁵⁾

여기서 혈(絜)의 의미와 구(矩)의 의미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34) 『大學疾書』 「十章」 675쪽, 上右-上左. “絜矩註家皆作度之以矩看. 然以語勢有可以明其不然者矣. [...] 今日度物以矩 則當爲矩絜 乃得其義矣.”

35) 『大學章句』 「十章」 676쪽, 上左. “章句曰 絜度也. 度者何謂也. 朱子曰 絜圍束也. 將一物圍束以爲之則也. 圍束而知其大小者 無與乎曲尺之用也. [...] 章句曰 矩所以爲方也. 何不曰爲方之器 而只言所以爲方也. 爲方也而非曲尺故也.”

혈(絜)은 ‘헤아린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 그러나 구(矩)의 의미는 ‘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곡척(曲尺)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자는 구(矩)를 곡척(曲尺)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고 성호 역시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 역시 주자가 해석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성호가 제시한 ‘회의를 통한 자득’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대학장구』 전9장에 나오는 ‘서(恕)’는 전10장의 ‘혈구지도’와 연결된다. 이 부분도 『대학』을 언급한 논문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성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다.

성호는 전4장만 해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경문의 ‘지지절과 ‘물유본말절’의 해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성호는 주자의 『대학장구』의 말을 따르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회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 주자의 견해에 따라 성호도 그대로 해석한다. 또 성호는 「대학출어역(大學出於易)」이라는 글을 『성호사설』에서 제시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성호의 작품인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V. 격물치지에 관한 성호의 견해

주자는 『대학장구』에서 격물치지에 대해 보충을 해 넣는데 이 부분이 「격물치지보망장」이다. 주자가 『대학장구』에서 격물치지를 중요하게 생각³⁶⁾했던 만큼 성호도 주자의 『대학장구』를 따르므로 격물치지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주자의 격물치지에 관해서는 논문이 이미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성호가 격물치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성호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경』에 “문조(文朝)의 사당에 이르렀다”³⁷⁾라고 하였고, 그 주에 격(格)은 이르는

36) 徐根植, 「『大學』解釋을 통해 본 朱子の 格物致知論」, 『東洋古典研究』 第33輯(東洋古典學會, 2008. 12)과 이에 대한 晦齋의 비판은 徐根植, 「晦齋 李彥迪의 『大學』 해석에 관한 연구」, 『東洋古典學會』 第34輯(東洋古典學會, 2009. 3)을 참조할 것.

것(至)이라 하였다. 『맹자』에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는다”³⁸⁾라고 하였으니, 격(格)은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 주자는 『서경』의 문장을 가지고 증거로 삼았지만 이는 다만 ‘격(格)’이 ‘이르다(至)’의 뜻이 됨을 밝혔을 뿐 내가 사물에 접하는 것이 “문조(文朝)의 사당에 이르다”와 같은 뜻이 아니다.³⁹⁾

이와 같이 성호는 주자처럼 ‘격(格)’을 ‘지(至)’로만 해석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나’의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성호는 물론 격물에서 주자와 같이 객관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나’에 대해 적극적인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성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

천하 가운데 국이 있고, 국 가운데 가가 있고, 가 가운데 신이 있고, 신 가운데 심이 있다. 의는 심이 발한 것이요, 지는 심의 깨달음이요, 심 속에 있으면서 심에 갖추어진 이치를 성이라고 한다. [...] 곧 그것은 나의 심 속에 갖추어져 있는 이치에 지나지 않는다. [...] 이런 의미에서 못 사물들이 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갖추고 있는 이치를 미루어 끝까지 연구하는 것이다.⁴⁰⁾

성호는 ‘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것은 나의 심(心) 속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여 ‘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격물을 주자와 같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 가운데 주관적인 ‘나’도 있음을 말한 것이다. 성호는 격물은 내가 갖추고 있는 이치와 사물의 이치를 겹쳐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주관적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¹⁾ 성호가 심을 강조한다고 하여 주관성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다. 성호는 다음과

37) 『書經』 「舜典」. “格于文朝.”

38) 『書經』 「四命」. “格其非心.” 여기서 『孟子』라고 잘못 말한 것은 『孟子』 「離婁』 위에 “格君心之非”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이다.

39) 『大學疾書』 「經」 657쪽, 下左. “書曰 格于文朝 格至也. 孟子曰 格其非心 格正也. [...] 朱子須以書文爲證 此只明格之爲至 非謂我至於物 如格于文朝之義.”

40) 『大學疾書』 「經」 658쪽, 上左-下右. “天下之中有國 國之中有家 家之中有身 身之中有心. 意是心之發 知是心之覺 亦是心中事 而心之所具之理曰性. [...] 卽不過吾心所具之理也. [...] 然則求於衆物 乃所以格吾所具之理也.”

41) 이러한 星湖의 『大學』 解釋은 陽明學의 觀點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星湖의 學脈을 거슬러 올라가면 退溪 李滉(1501-1570)이 나오는데, 退溪는 우리가 알다시피 『傳習錄論辯』 등에서 陽明學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星湖의 『李子粹語』 같은 책을 보면 星湖가 退溪를 매우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星湖의 陽明學의 觀點으로 볼 수 없다.

같이 말한다.

만약 모든 사물의 이치에 나아가 구하지 않고 우뚝이 홀로 내 마음만 지키고자 하면, 끝내 「격(格)할 도리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물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²⁾

성호는 심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인식 면에서 객관성의 확보라는 점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성호가 심을 강조한 것은 공효를 얻기 위한 실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⁴³⁾

성호는 또 주자의 「격물치지보망장」이 들어가 있는 전5장에서 격물치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격물치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밝혔다고 보다는 그 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격물치지보망장」은 그 대의가 모두 정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므로 “은근히 정자의 뜻을 가지고 보충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빠진 부분이 있으므로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정한 사람은 주자이다. 그러므로 「대학장구서」에서 “은근히 내 뜻을 덧붙여 보충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결국 정자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덧붙인 것이다.⁴⁴⁾

성호는 「격물치지보망장」이 정자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격물치지보망장」의 대의가 이미 정자에게 있다면 주자가 한 것은 「격물치지보망장」의 표현을 고친 것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을 『예기』에서 독립시키고, 『대학장구』를 만들면서 「격물치지보망장」을 전5장에 집어 넣은 것은 주자의 공이다. 그러므로 성호는 「격물치지보망장」은 정자와 주자의 공동작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격물치지보망장」에서 주자는 “그 문체를 본뜨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주자가 어찌 정말 되지 않았겠는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42) 『大學疾書』 「經」 658쪽, 下右. “然若不求於衆理之上 而兀然獨守吾心 則終無可格之道. 故必於事物求之.”

43) 金仁圭, 「星湖 李瀼의 大學觀」, 『東方學』 第17輯(韓瑞大學校附設東洋古典研究所, 2009. 10), 274쪽 참조.

44) 『大學疾書』 「五章」 666쪽, 上右. “補傳之文 大意皆出於程子. 故曰竊取程子之意以補之. 然斷以爲有關 而不可不補則朱子事. 故序文曰 竊附己意以補之. 畢竟取程子之意 而附己意爾.”

옛사람은 언어표현이 간결하고 마음이 밝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체가 저러하였다. 주자가 상세한 주석을 갖추어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본뜻이 다시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⁴⁵⁾

주자는 전6장의 소주에서 “그 문체(文體)를 본뜨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격물치지보망장」에 대해 완전한 글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호는 주자의 이 말을 겸사로 보고 주자가 없었다면 격물치지의 본래 뜻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성호가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격물치지보망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원칙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이다. 성호는 주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므로 특별하게 말한 부분만 언급하였다.

성호는 격물치지에 대해 대체로 주자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으며, 주자가 전5장을 「격물치지보망장」으로 대체한 것에도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다. 특별하게 언급한 부분은 「격물치지보망장」이 정자와 주자가 공동으로 저작하고 「대학」을 『예기』로부터 독립시켜 『대학장구』를 만들면서 전5장에 집어넣은 것이라는 부분뿐이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성호의 『대학질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 주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원칙하에 작성된 부분도 보인다. 또 필자의 견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나중에 성호학파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호의 『대학질서』는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원칙하에 새로운 것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주자가 주장한 학설들을 그대로 따르면서부터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전의 백호 윤희나 서계 박세당이 이미 제시해놓

45) 『大學疾書』「五章」667쪽, 上左. “補傳朱子謂 效其文體不能成. 愚按朱子豈振不能成其實不必效也. 想古人言語簡 心術明 易以曉解 故其文顧如此.”

은 체제를 수용하지 못하였다.

성호는 주자의 『대학장구』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주자와 비슷하다. 주자는 삼강령과 팔조목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지지절(知止節)’과 ‘물유본말절(物有本末節)’을 삼강령과 팔조목 사이에 끼워 넣었고, 성호도 같은 입장이다. 이 부분은 회재가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부분이다. 그리고 명명덕의 문제에서는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입장에서 성호의 독특한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친(新)민에서도 ‘친(親)자를 ‘신(新)자로 본 이유에 대해 한 구절만 내세웠는데 이 점은 ‘회의를 통한 자득’이라는 측면에 어울리지 않는다.

성호는 전4장만 해석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경문의 ‘지지절(知止節)’과 ‘물유본말절(物有本末節)’의 해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성호는 주자의 『대학장구』의 말을 따르므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회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또, 주자의 견해에 따라 성호도 그대로 해석한다. 또 성호는 「대학출어역(大學出於易)」이라는 글을 『성호사설』에서 제시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성호의 작품인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성호는 격물치지에 대해 대체로 주자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으며, 주자가 전5장을 「격물치지보망장」으로 대체한 것에도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다. 특별하게 언급한 부분은 「격물치지보망장」이 정자와 주자가 공동으로 저작하고 「대학」을 『예기』로부터 독립시켜 『대학장구』를 만들면서 전5장에 집어넣은 것이라는 부분뿐이다.

성호의 『대학질서』에 관한 연구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논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강세구, 『성호학통 연구』. 혜안, 1999.
- 권문봉, 「성호 이익의 경학과 사서질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대학』 주석을 통해 본 성호의 경학」.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12.
- 김용걸, 『이익사상의 구조와 사회개혁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김인규, 「성호 이익의 대학관」. 『동방학』 제17집, 한서대학교부설동양고전연구소, 2009. 10.
- 김정민, 「성호 이익의 사서질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동양고전학회 편, 『『대학』의 종합적 고찰』. 심산, 2013.
- 서근식, 「『대학』 해석을 통해 본 주자의 격물치지론」. 『동양고전연구』 제33집, 동양고전학회, 2008. 12.
- _____, 「회재 이언적의 『대학』 해석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학회』 제34집, 동양고전학회, 2009. 3.
- _____, 「근기남인으로서의 성호 이익의 역학사상 - 「시폐고」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32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11. 9.
- _____, 「성호 이익의 『중용질서』 연구」. 『동양고전학회』 제54집, 동양고전학회, 2014. 6.
- 안재순, 「이성호의 『대학질서』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제2집, 동양철학연구회, 1981. 9.
- 원재린, 『조선 후기 성호학파의 학통 연구』. 혜안, 2003.
- 윤재환, 「근기남인 학통의 전개와 성호학의 형성」. 『온지논총』 제36집, 온지학회, 2013. 7.
- 이익, 『대학질서』. 『성호전서』(전7책), 여강출판사, 1984.
- _____, 『성호사설』. 『성호전서』(전7책), 여강출판사, 1984.
- 임형택 편집, 『근기실학연원제현집』(전6책).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2002.
- 최석기, 「성호 이익의 『대학』 해석과 그 의미」. 『한국실학연구』 제4호, 한국실학학회, 2002. 12.
- 최석기 외, 『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 무늬, 2012.

국 문 요 약

성호의 『대학질서』는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회의를 통한自得’이라는 원칙하에 새로운 것을 주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주자가 주장한 학설들을 그대로 따르면서부터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성호는 주자의 『대학장구』의 체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주자와 비슷하다. 주자는 삼강령과 팔조목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도 ‘지지절(知止節)’과 ‘물유본말절(物有本末節)’을 삼강령과 팔조목 사이에 끼워 넣었다. 성호도 같은 입장이다. 이 부분은 회재가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부분이다. 그리고 명명덕의 문제에서는 ‘회의를 통한自得’이라는 입장에서 성호의 독특한 측면이 잘 드러나 있다. 친(親)민에서도 ‘친(親)자를 ‘신(新)자로 본 이유에 대해 짧은 글만 내세웠는데 이 점은 ‘회의를 통한自得(自得)’이라는 측면에 어울리지 않는다.

성호는 전4장만 해석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경문의 ‘지지절(知止節)’과 ‘물유본말절(物有本末節)’의 해석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성호는 「대학출어역(大學出於易)」이라는 글을 『성호사설』에서 제시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성호의 작품인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

성호는 격물치지에 대해 대체로 주자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으며, 주자가 전5장을 「격물치지보망장」으로 대체한 것에도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다. 특별하게 언급한 부분은 「격물치지보망장」이 정자와 주자가 공동으로 저작하고 「대학」을 『예기』로부터 독립시켜 『대학장구』를 만들면서 전5장에 집어넣은 것이라는 부분뿐이다.

투고일 2014. 12. 22.

심사일 2015. 1. 20.

게재 확정일 2015. 2. 10.

주제어(keyword) 성호 이익(星湖 李翼, Seongho Yi Ik), 주자(朱子, Zhuzi), 『대학질서』(『大學疾書』, *Daxuejishu*), 『대학장구』(『大學章句』, *Daxuezhangju*), 회의를 통한自得(be self-satisfied through skeptical point of view), 격물치지(格物致知, Gewuzhizhi)

Abstracts

Study on *Daxuejishu*(『大學疾書』) Written by Seongho Yi-ik

(星湖 李漢)

Seo, Geun-sik

Daxuejishu(『大學疾書』) by Seongho(星湖) had attempted to contend a new thing under the principle of be self-satisfied through skeptical point of view(懷疑를 통한自得) of *Daxuezhangju*(『大學章句』) written by Zhuzi(朱子).

But he had not asserted himself many a new view on account of following the theory intact asserted by Zhuzi(朱子) in *Daxuezhangju*(『大學章句』) written by Zhuzi(朱子). Seongho(星湖) had followed the system set up in the *Daxuezhangju*(『大學章句』) by Zhuzi(朱子). Accordingly the problems arising from such sources are quite similar to Zhuzi(朱子). Although Juja put emphasis on Sangangling(三綱領) and Batiaomu(八條目), he had inserted Zhizhijie(知止節) and Wuyoubenmojie(物有本末節) in between Sangangling(三綱領) and Batiaomu(八條目). Seongho(星湖) was on the same page. This part was already indicated as a problem by Hoejae(晦齋). And, on the subject of Mingmingde(明明德), it was well brought to light the unique character of Seongho(星湖) from the standpoint of be self-satisfied through skeptical point of view(懷疑를 통한自得). As in Qinmin(親民) or Xinmin(新民), the reason why the letter, Qin(親) understood as Xin(新) was explained only by a short sentence, however, it is inappropriate in a sense of be self-satisfied through skeptical point of view(懷疑를 통한自得).

Seongho(星湖) didn't make an interpretation only Chapter 4. This part i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Zhizhijie(知止節) and Wuyoubenmojie(物有本末節) in the scripture, so thus it is important. However, Seongho(星湖) did not interpret this section. Seongho(星湖) had presented a writing namely *Daxuechuyuyi*(『大學出於易』) in the *Xinghusaishuo*(『星湖僿說』), but this is a part of doubt if it is a really Seongho(星湖)'s work.

Seongho(星湖) mostly shared the view of Zhuzi(朱子) about Gewuzhizhi(格物致知), and he hadn't seem to discontent replacing Chapter 5 with Gewuzhizhibumangzhang(『格物致知補亡章』). Specially mentioned section was only that Gewuzhizhibumangzhang(『格物致知補亡章』) was done by joint works of Chengzi(程子) and Zhuzi(朱子), and creating *Daxuezhangju*(『大學章句』) by independence *Daxue*(『大學』) from Book of *Liji*(『禮記』), and inserted it into Chapter 5.